

한국 로맨스·멜로영화 멸종

올해 국내 개봉 한국영화 관객 100만명 이상 작품 41편 중 단 한 편도 없어

로맨스 영화가 사라지고 있다. 1990년대 말 '집속'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시작으로 2000년 초반 '변지점프를 하다' '클래식 너는 내 운명' 등으로 부흥기를 맞고,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영화의 중심에 서있던 로맨스·멜로 영화가 최근 점차 쪼그라들더니 이제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단적인 예로 올해 국내 개봉 한국영화 중 관객 100만명 이상 불러모은 작품 41편 중(10월19일 현재·영화진흥위원회) 로맨스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단 한 편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흥행 면에서 실패를 작품성으로 만회한 작품도 없었다. 한국 영화가 범죄·액션·스릴러 장르로의 편향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을 올해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건 단순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5년간(2011~2015) 국내 개봉 영화 중 1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189편 이 중 넓게 분류해 로맨스물에 속하는 작품은 17편으로 8.9%에 불과하다.

한국 로맨스 영화가 이른바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은 많이 드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이제는 허진호도 만들기 어려워요." 한 제작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 될 것 아니냐. 로맨스영화는 아무리 흥행이 잘 돼도 중박, 웬만하면 쪽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맨스영화를 누가 만드나. 정우성·김하늘이 나와도 안 되는 게 현재 한국 로맨스 영화"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로맨스 영화의 가장 큰 딜레마는 노력 대비 저조한 성과다.

범죄·액션·스릴러 장르보다는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지만, 제작·연출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다른 장르 영화 못지않다. 똑같은 노력이라면 오히려 돈이 되는 장르 영화를 만드는 게 낫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작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새 로맨스 영화 찍으면서 아무 데서나 촬영할 수 있다. 외국에 한 번 다녀와야 하고, 촬영 장소도 멋져야 하고, 각종 소품 디테일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야 하고, 톱배우들 캐스팅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될까말까.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영화 관람료는 비싸지는데, TV로 봐도 되는 로맨스를...

가장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는 주말 영화 관람료는 1만원 이상이다. 영화가



2003년 인기를 끌었던 조인성·손예진 주연의 영화 클래식의 한 장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생활 중 하나라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더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관객도 최대한 돈이 아깝지 않은 작품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로맨스 영화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집에서 TV를 보는 것과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의 간극이 예전보다 더 벌어지고 있다. 영화를 본다는 건 진짜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한다. 돈을 내고 큰 화면으로 보기에 로맨스 영화는 심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국체전 전북선수단 해단식·입상격려회 개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는 24일 오후 6시 웨딩홀에서 '제97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 및 입상 격려회'를 개최한다.

이번 해단식 겸 입상 격려회는 본도 종합 9위 성적 거양에 따른 종목단체, 지도자,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대회 총감독이었던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의 단기비판과 입상 격려 및 상의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은 지난달 전북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7개·은메달 40개·동메달 82개(종합득점 3만2736점)를 획득해 종합순위 9위를 기록했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대학 여자동아리대회 내달12일 개최

2016 대학 여자동아리대회가 11월12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여대생이 참여하는 순수 아마추어 동아리대회로 여성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스포츠 여성 동호인 자변화대를 도모하고자 종합 축제형식으로 개최된다. 운영종목은 6:6 미니축구, 힙합&방스댄스 등 2종목 3개 부문의 경기가 치러지며, 스포츠체합부스 스포츠관련 취업 상담부스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대회 개최식은 11월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며, 서울사태권도사범단 공연, 마술쇼, DJ 힙합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회 참가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한국대학교스포츠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팀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하며, 6:6 미니축구 24팀, 힙합 15팀, 방스댄스 15팀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kust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조협회, 한국대학교스포츠총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종합시상외 질서상, 화합상 등 다양한 시상이 준비돼 있다.

/김민근기자

빌보드, '방탄소년단' 집중 조명

'꼭 들어야 하는 대표곡 10' 제목의 칼럼 게재

미국 빌보드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집중 조명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빌보드는 19일(현지시간) '꼭 들어야 하는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10'(10 Must-Listen BTS Song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빌보드는 이 칼럼에서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 국제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 앨범 '윙스(WINGS)'로 빌보드 200에 한국 가수 최고 순위인 26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대중적이지 않은 듯한 음악임에도 방탄소년단은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들은 힙합스러우면서도 일렉트로닉한 멜로디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이 데뷔 이래 발표한 노래 중 10곡을 직접 선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빌보드가 선정한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1위는 현재 국내의 차트를 휩쓸고 있는 '윙스'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이다. 그룹의 혁신적인 면과 지금까지의 음악 커리어가 가장 잘 반영된 곡으로 팀의 조화가 잘 드러나 있다고 봤다. 동시에 빌보드 200 차트에서 한국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베스트 곡이라고 소개했다.

2위로는 데뷔곡인 '노 모어 드림(No More Dream)'을 선정했다. 힙합의 개성이 잘 드러났으며 팀의 성격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곡이라고 설명했다. 3위로는 '사이퍼 PT.3 : 킬러(BTS Cypher PT.3 :



KILLER)'를 꼽았다. 이어 '세이프 미'(Save ME), '상남자', '뱀새', '런'(RUN), '진격의 방탄', '절어', '아이 니드 유'(I NEED U) 등 곡을 차례로 선정했다. 음악적 분석과 함께 글로벌 그룹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점 등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신 빌보드 차트인 29일자에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 26위로 진입, 해당 차트 한국 최고 기록을 수립했다. 또 월드 앨범 차트와 월드 디지털 송 차트, 소셜 50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엑소' 멤버 레이, 첫 미니앨범 '루즈 컨트롤'

한류그룹 '엑소' 멤버 레이가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이는 오는 28일 오전 1시(한국시간 기준) 국내 음원 사이트와 중국 알리뮤직 산하의 사미뮤직을 통해 첫 미니앨범 '루즈 컨트롤(LOSE CONTROL)'을 공개한다. 중국어 곡 6트랙으로 구성됐다. 레이가 전곡 작사, 작곡, 편곡까지 도맡았다.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담은 앨범으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셈이다.

앨범 발매에 앞서 레이는 지난 7일 생일을 맞아 선공개한 수록곡 '왓 유 니드(what U need)'로 중국 사미뮤직차트에서 꾸준히 1위를 유지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 강소위성TV 드라마 '호선생(好先生)', 동방위성TV 드라마 '노구론' 등 출연 작품 2개가 연이어 온라인 누적 조회 수 100억뷰를 돌파, 연기자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